

여성 결혼이민자의 구어 담화에 나타난 응답 발화 분석

김선정* · 김신희**

Abstract

Kim, Seon-Jung & Kim, Shin-Hee. 2013. 2. 28. **An Analysis of Response Utterances Found in Colloquial Discourse of Marriage Woman Immigrants.** *Bilingual Research* 51, 1-2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sponse utterances that can measure the interactivity of conversation from the colloquial discourse of marriage woman immigra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aspect of the use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The participants were 25 marriage woman immigrants with elementary level of Korean speaking ability who were from China, Cambodia, Vietnam, the Philippines, Uzbekistan, and Peru. Through the spoken corpus of the participants' daily conversation, the response utterances which are adjacency pairs of questions were divided into the preferred response and the dispreferred response. And the aspects of use by function and by form were examined.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elementary level marriage woman immigrants used lots of simple responses intensively that provide only direct information in the response utterances. This means that they are not skilful in mutually cooperative conversation when speaking in Korean and have a hard time composing the response utterances in appropriate Korean. Accordingly, in order for them to communicate naturally in Korean, the development of concrete educational methods of the response utterances suitable to Korean circumstances and forms in Korean language training is required. (Keimyung University)

[Key words] response utterances(응답 발화), preferred response(선호적 응

* 제1저자

**교신저자

대), dispreferred response(비선호적 응대), simple response(단순 응대), extended response(확장 응대)

1. 머리말

외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구성하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주고받기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특히 선행 발화에서 청자에게 어떠한 응답을 요구하거나 제안 및 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어지는 후행 발화에 의해 원활한 대화 진행의 여부와 대화의 상호작용성이 결정된다. 응답을 요구하는 선행 발화에 대해 적절한 응답 발화¹⁾를 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쉽고, 때로는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인 학습자의 응답 발화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제 사용적인 측면의 언어 연구는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언어인 구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비록 구어가 무질서하게 교대 순서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체계성을 가지며, 언어를 통한 가장 기본적인 상호 교환 체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Cosaro, 1985). 본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적이고 비격식적인 구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응답 발화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

1) 선행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칭하는 것으로 Levinson(1983)은 인접쌍(adjacency pairs)에서 선행부(first pair part)에 대한 후행부(second pair part)로, 전영옥, 구현정(2003)은 ‘주는 말’에 대한 ‘받는 말’로, 김미령(2005)은 ‘선행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 등의 반응을 요구하는 선행 발화에 대한 대답으로 ‘응답 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청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경청의 표지로 사용하는 ‘반응 발화(reactive token)’나 ‘back channels’(Yngve, 1970), ‘continuers’(Schegloff, 1982)와는 다른 개념이다.

다. 이는 이들이 사용하는 대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를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응답 화행을 교육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응답 발화의 개념 및 분류 기준

대화는 두 사람이 공통의 화제로 하나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 진행된다. 대화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역할을 교대하면서 대화의 주고받기를 구성하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연속이 필수적인 구성 조건이다. 이중 대화의 지속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발화의 시작 부분인 선행 발화보다는 후행 부분인 후행 발화의 역할이 더 크다. 선행 발화라는 자극에 대해 반응으로 실현되는 후행 발화는 그 내용과 후행 화자의 의도에 따라 대화의 성립 여부와 분위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후행 발화는 선행 발화와 함께 대응쌍(adjacency pairs)을 이루는 화행의 연속체로서 의사소통의 최소단위이다. Beaugrande(1997)는 의사소통을 모형화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선형성에 주목하여 화자의 전망적 원리(look-ahead principle)와 청자의 회고적 원리(look-back principle) 등을 비롯한 일곱 가지의 선형적 원리를 언급하였다. 이어 DAMSL²⁾에서 회고적 기능은 선행 발화에 대해 후행 발화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동의(agreement) 행위, 이해(understanding) 행위, 답변(answer) 행위, 반응(reaction) 행위로 나누었다. 이것은 선행 발화에 대한 후행 화행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김미령(2005)에서는

2) DAMSL(Dialog Act Markup in Several Layers)은 1996년 Pennsylvania 대학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의 연구자들이 구어 주석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DRI(Discourse Research Initiative)에서 개발한 구어 담화 주석 방식이다.

전달 목적의 선행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는 선행 화자와의 관계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발화시점 이전의 특별한 일이나 경험이 관여되어 표현되는 발화를 칭한다. 또한 김미령(2006)에서는 반응 요구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는 언어적 반응 여부, 선행 발화의 내용과 관련성의 여부,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한 태도의 여부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Sacks(1972)는 후행 발화 가운데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질문’에 대한 ‘응답(response)’이라고 하였다. 즉, 질문과 응답은 대화 참여자 사이의 공동 작업이고, 상호작용적인 대화의 특성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며,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일상대화에서는 질문과 응답이라는 대응쌍이 실패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질문, 명령, 요청, 제안, 권유3)’ 등의 언어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선행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를 ‘응답 발화’로 칭하고자 한다.

대응쌍 속에서 응답은 단순한 소음의 연쇄(noisy sequence)가 아닌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ur)이다(Yule, 2001). 이러한 응답은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하는 선호적인(preferred) 말과 상대방이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내용으로 거절하는 비선호적(dispreferred)인 말로 분류된다(Levinson, 1983). 화용론적 관점에서 보면, 선호적인 응대는 수락이나 동의처럼 기대하는 긍정적인 답변으로서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특성을 보이며 구조적으로 단순하다(Pomerantz, 1984). 또한 선호적 응대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화자와 청자 간에 친밀감을 부여하여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반면 비선호적 응대는 부정적인 답변으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답변은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변명이나 부연 설명이 추가되고, 이 때문에 선호적 응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Levinson(1983)은 비선호적 응대의 특징으로 상당

3) 김미령(2006)에서는 선행 발화를 전달에 목적을 두는 화행과 청자의 반응까지 요구하는 화행으로 구분하였는데, 반응 요구 화행으로는 ‘질문, 제안, 허가, 권유, 요청, 명령, 경고, 호소’ 화행을 설정하였다.

한 지연(delay) 후에 일어나고, 비선호적 표현을 알리는 ‘well’이나 ‘ah’ 같은 담화표지와 함께 나오며, 선호적 표현이 올 수 없는 이유나 설명 등이 함께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상 대화에 나타나는 질문 등의 응답 요구 발화에 대한 응대에서는 청자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화자의 목적 달성 여부가 결정되며, 대화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선, 장경희(2007)를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선호적 응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선호적 응대’로 칭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호적 응대를 세분하였다.⁴⁾

<표 1> 선호적 응대의 분류 기준

분 류	내 용
단순 응대	감탄사를 사용한 ‘예, 네’ 등의 단순 긍정으로 직접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응대. 예) Q: 몇 시에 가니? A: 7시.
확장 응대	질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응대. 예) Q: 몇 시에 가니? A: 7시. 8시까지 출근이야. 회의 때문에.

‘단순 응대’는 가장 기본적인 선호적 응대이다. ‘예, 네’ 등은 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으로도 사용되며, 좀 더 화자의 편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낸다. 또한 전형적인 정보 차원의 응답으로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확장 응대’는 질문 내용에 대한 청자의 태도, 심리 상태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을 지닌다(장경희, 2000).

4) Levinson(1983)은 구조적 측면에서 수락이면 선호적 반응(preferred response)으로, 거절이면 비선호적 반응(dispreferred response)으로 구별한다. 장경희(2000)는 판정 질문에 한정하여 응대 내용의 직접성 여부에 따라 직접성과 간접성의 관점, 응대 내용의 확실성 여부에 따라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관점, 부연 확장 진행 여부에 따라 단순과 부연확장의 관점, 응대 시점의 여부에 따라 즉각성과 단계성의 관점으로 대담을 각각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한다. 이은영(2003)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직접성 여부에 따라 직접 대답과 간접 대답으로 구분하고, 장수희(2004)는 화자에 대해 청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협조적, 비협조적 청자반응으로 구분하고 비언어적인 부분까지도 분류한다.

질문에 대한 정보의 양을 필요한 만큼만 줄 수도 있고, 필요 이상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화자로 하여금 추론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⁵⁾

비선호적 응대는 Levinson(1983)의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표 2> 비선호적 응대의 분류 기준

분 류		내 용
단순 응대		‘아니’ 등을 이용한 직접적이고 단순한 부정 응대
확장 응대	되묻기	간접적인 의문문을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응대
	화제 전환하기	선행 발화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답하는 응대
	부연 설명하기	명제 내용의 사실성을 부인하면서 부연 설명을 통해 화자의 체면 손상을 덜어 주는 기능을 하는 응대
	서언 사용하기	선행 발화에 부응할 수 없을 때 서두에 비선호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응대. 예) 근데, 있잖아, 아니 등
	휴지나 망설임	발화를 하기 전에 휴지(pause)를 두거나 ‘음, 어’ 등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응대
	무응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대화 진행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언어적 응답 발화가 없는 응대
	둘러 말하기	질문에 대한 부정으로 함축어를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응대 예) Q: 어제 센터 왔어요? A: 비가 엄청 왔어요.
	언어 전환	질문에 대한 이해는 하였으나 한국어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자신의 모어로 응대

이상의 분류 기준을 통해 초급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로 어떻게 응답 발화를 사용하는지,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청자로서 반응을 하는지, 어떠한 부적절한 응답 발화로 대화의 흐름을 방해

5) 장경희(2000)에서는 질문에 대한 확장 응대를 다시 ‘첨가 확장, 추론 확장, 명세화 확장’으로 유형화한다. 첨가 확장이란 질문자가 요구 정보를 제공한 후에 정보를 추가하여 확장하는 것이고, 추론 확장은 명시적인 요구 정보 대신 확장 정보를 제공하여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확장을 말한다. 명세화 확장이란 질문자가 요구한 정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참여자 및 방법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의 구어 담화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구 S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초급⁶⁾ 두 개 반의 6개국 여성 결혼이민자 25명이다.

<표 3> 연구 대상자 정보

국적							평균거주 기간 (개월)	평균학습 기간 (개월)
CHK ⁷⁾	CMK	PHK	PRK	UZK	VTK	계 (명)		
4	8	3	1	2	7	25	22.5	11.69

구어 말뭉치 자료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먼저 개별적인 녹음에 동의한 8명⁸⁾의 학습자들은 약 15일 동안 휴대용 녹음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외국인 친구들 또는 한국인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였다. 다음은 수업 시작 전 20-30분 정도 외국인 학습자들끼리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녹음한 일상적이고 친교적인 구어 자료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구어 녹음 자료는 Schiffrin(1987), Tannen(1984)의 전사법과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말뭉치 전사 지침(국립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초, 중, 고급반으로 나누어 주당 2, 3회씩 수준별 집합 수업을 한다. 본고의 연구 참여자들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2」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7) CHK= Chinese Korean, CMK= Cambodian Korean, PHK= Philippines Korean, PRK= Peruvian Korean, UZK= Uzbekistan Korean, VTK= Vietnamese Korean

8) CHK: 2명, CMK: 2명, PHK: 3명, VTK: 1명이다.

국어원, 2006:50~60)을 참고하여 억양 단위에 따라 일차적으로 철자법 수준의 전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를 대조해 가며 분석에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전사된 구어 말뭉치 자료는 총 16,315 문장, 44,694 어절이다.

다음 장에서는 전사된 생생한 구어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응답 발화 사용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4. 여성 결혼이민자의 응답 발화 분석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응답 발화는 선호적 응대와 비선호적 응대로 분류된다. 응답 발화에서 나타난 선호적 응대와 비선호적 응대는 다음과 같다.

<표 4> 선호적 응대와 비선호적 응대의 출현 빈도

응답 발화	빈도(회)	비율(%)
선호적 응대	983	48.54
비선호적 응대	1,042	51.46
계	2,025	100.00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 대학생의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대응쌍을 연구한 서상규, 구현정(2005)에서는 선호 범주 61.4%, 비선호 범주 19.5%, 중간 범주⁹⁾ 18.4%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그만큼 상호협력적인(mutual cooperative) 대화에 능숙하지 못하며, 한국어로 응답 발화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발화에 나타난

9) 서상규, 구현정(2005)에서는 후행 발화의 화행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을 벌거나(보류), 확인 작업을 하거나(확인 요청), 확실한 이해를 요구하는(이해 불가) 절차를 밟는 유형 등을 중간 범주로 분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 범주를 비선호적 응대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특징을 선호적 응대와 비선호적 응대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선호적 응대

선호적 응대란 선행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가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제시되는 응답을 의미하는데 선호적 응대는 다시 단순 응대와 확장 응대로 나뉜다.

4.1.1. 단순 응대

단순 응대란 화자의 질문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단순 응대 방식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응쌍에서 선호 응대가 짝을 이루어 많이 나타나면 대화 참여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의사소통이 순조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단순 응대는 활발한 의사소통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만 해석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한국인: 인천에 있어요?

VTK3: 네.

한국인: 친정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VTK3: 네.

한국인: 엄마 걱정 많이 하시죠?

VTK3: 네.

한국인: 전화 자주 해요?

VTK3: 네. 자주.

네 차례의 순서교대에서 VTK3은 모두 선행 발화의 질문에 간단하고

소극적인 단순 응대만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구현정(2000:216)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대화의 장애 요소가 된다고 지적한다. 말을 받는 사람은 앞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말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정보를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대화가 계속 순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순환적 관점에서 볼 때 (1)은 단절된 대화의 예이다.¹⁰⁾ VTK3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가보다는 단순히 수용만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대화에서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선행 발화에 관한 관련성이 있는 말을 하면서 진행된다. 그러나 다음의 예 역시 관련성이 있는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의 단절을 초래한다.

(2) 미용실 주인: xx이 아빤 일 갔어요?

PHK1: 일 갔어요.

미용실 주인: 점심 때 갔어요?

PHK1: 점심 때.

미용실 주인: 액세서리 귀걸이 해요?

PHK1: 네. [웃음]

미용실 주인: 알레르기 없어요?

PHK1: 없어요.

미용실 주인: 얼마 주고 샀어요?

PHK1: 천 원.

10) Heritage(1984)는 응답 발화를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앞 사람의 발화를 수용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발화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을 받아서 다시 새로운 정보를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전자를 맥락 다듬기(context-shaped)라고 하고, 후자를 맥락 갱신(context renewing)이라고 한다.

미용실 주인: 어? 이걸 언제 찍은 거요? 보자.

PHK1: 아, 남편=.¹¹⁾

미용실 주인: 어떻게 만들어요?

PHK1: 그냥. movie maker? 윈도우. 컴퓨터.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미용실 주인은 화제 진전과 화제 전환을 시켜보지만 PHK1은 단순 긍정적인 ‘네’와 직접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때로는 ‘남편=’으로 말끝 흐림 현상까지 동반하여 응답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유대감을 키우는 데는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선호적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만 수행하는 단순 응대 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1.2. 확장 응대

확장 응대란 질문 내용에 정보, 태도,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화제 진전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응대를 일컫는다.

(3) a. CMK2: 어려운 말 나왔어요. 예능?

VTK1: 네. 알아요. 1박 2일 재밌어요.

CMK2: 재밌어요. 그냥 막 같이 봐요. 재밌잖아요?

CHK1: 뽀로로하고 그냥 /?/ 그 뭐지? 다 좋아요.

b. CMK1: 시장에 가서 무엇을 옷을 살 거야?

CHK1: 같이 갈래? 어디 갈래? 같이 갈래요?

VTK1: 좋아. 어디 백화점 가요?

CHK1: 12시 반. 같이 갈래?

VTK1: 가요. 바빠요. 시간 2시 갈래요? 배고프잖아.

11) ‘=’은 말끝 흐림의 전사 기호로 의도했던 말을 다 하지 못하면서 하강조의 억양과 함께 나타난다.

CMK1: 밥 안 먹어도 돼. [웃음]

위 (3)a에서 VTK1은 예능이라는 말에 ‘1박 2일 재밌어요’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용을 확장하여 대화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확장 응대를 통해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3)b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2시 반에 같이 가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바빠요’라는 말로만 응대하지 않고, 추가로 ‘2시’라는 새로운 시간을 제시하여 응대를 확대하였다.

4.1.3. 선호적 응대의 사용 양상

본 연구 자료에 나타난 선호적 응대의 출현 빈도를 단순 응대와 확장 응대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선호적 응대의 출현 빈도

분 류	빈도(회)	비율(%)
단순 응대	689	70.09
확장 응대	294	29.91
계	983	100.00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대응쌍에서 선호 응대가 짝을 이루어 많이 나타나면 대화 참여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의사소통이 순조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선호 응대는 단순 응대의 출현 빈도가 확장 응대의 출현 빈도보다 극히 높다. 또한 위 예문 (1)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 응대는 활발한 의사소통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때로는 청자로 하여금 말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할을 한다. 김미령(2003)에서는 한국어의 응답 발화는 풀이말 형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어가 풀

이말에 의미의 중심이 있고, 서법 요소도 풀이말에 놓이게 되어 한국어 가 풀이말 중심의 언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한다. 풀이 말의 예로 ‘됐습니다, 알았다, 알겠다, 잘 됐네, 끝내 주네’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대화에 나타난 선호적 응대의 형태적 유형이다.

<표 6> 선호적 응대의 형태적 유형

표현	빈도(회)	비율(%)	비율(%)
네	343	74.4	87.42
예	60	13.02	
맞다	27	5.86	12.58
그래	17	3.69	
진짜	8	1.74	
정말	4	0.87	
됐다	2	0.43	
계	461	100.00	100.00

<표 6>과 같이 이들의 선호적 응대의 형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즉, 서술어류의 어휘들은 극히 출현 빈도가 낮고 감탄사류와 같은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원형으로 사용되지 않고 시제나 서법 등에 따라 활용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대화의 응대 방식이 ‘예’와 ‘네’ 등의 단조로운 응답 발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대화의 상호작용성이 그만큼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2. 비선호적 응대

비선호적 응대란 대화 상대자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내용으로 응

대하는 것으로 주로 거절하는 말이나 부정적인 답변으로 나타난다. 비선호적 응대는 화자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변명이나 부연설명이 추가되므로 선호적 응대에 비해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4.2.1. 단순 응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비선호적 응대에서도 선호적 응대에서와 같이 단순 응대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다음은 직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응대의 예이다.

(4) CMK2: 왜 요리 안 해요?

CHK1: 요리는 음식 못 해요.

CMK4: 어떻게 먹어요?

CHK1: 사오(면) 먹어요.

CMK1: 그럼 뭐 먹어요?

CHK1: 시장에 사와 먹어요.

선호적 응대에 비해 비선호적 응대에서는 정보를 찾아가기 위해 말 교대를 여러 번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대응쌍을 만들어 원활한 대화를 나눈다. 이처럼 비선호적 응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지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 연구 자료에서는 아래 (5)처럼 비선호적 응대로 인해 화제가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12) 김정선, 장경희(2007)에서는 말하기 능력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0대, 20대, 30대 각 20명씩 총 60명의 한국인의 일상대화를 분석하였는데, 단순 응대(64.8%)를 확장 응대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40.8%), 30대(35.6%)가 10대(25.8%)보다 확장 응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령, 동일 성별로 구성된 10대 집단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2, 30대 성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화법을 덜 사용하여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5) a. 한국인: 캄보디아 뭐가 유명해요?

CMK8: 캄보디아 좋은 없어요.

한국인: 캄보디아 남자들 말 많아요?

CMK8: 몰라요.

CMK2: 어제 저 신청해놨어요. 근데 아직 못 받아요.

다음 달에 검사해 봐요. 아니면=.

b. 한국인: 한국 드라마 보고 잘 들어요?

CMK4: 몰라요.

CMK5: 아니요. 눈물 없어요.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통해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5)a에서는 CMK8의 비선호적인 단순 응대로 인해 한국인과는 화제가 단절되고 결국 CMK2에게 발언권이 넘어가면서 대화의 화제가 바뀌게 된다. (5)b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선호 응대 표현인 ‘몰라요’를 사용한 예이다. CMK4처럼 다른 완화 장치 없이 ‘몰라요’만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선호적 응대는 자칫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 있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CMK5의 ‘눈물이 없어요’라는 확장 응대는 훨씬 더 우호적인 대화 참여 의도가 느껴진다. 직접적인 단순 응대는 명료함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분명한 표현으로 인해 심리적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과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2.2. 확장 응대

비선호적 응대의 확장 응대는 되묻기나 부연 설명하기, 화제 전환하기, 시간 벌기, 서언 사용하기, 언어 전환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확장 응대의 유형을 출현 빈도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되묻기

되묻기는 단순 응대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며, 확장 응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화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되묻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위한다거나 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기 위해 출현한다. 즉, 화자에게 되물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6) a. CMK3: 필리핀 사람 아니에요?

VTK3: 왜 그래요?

b. 한국인 직장 상사: 필리핀 말만 하면 똑같지. 내년에도 안 돼.
똑같애.

PHK3: 왜 똑같애? 천천히 공부해.

위 (6)a에서는 CMK3이 VTK3에게 외모가 필리핀 사람과 닮았다며 필리핀 사람이 아니냐고 묻자 직답을 회피하고 화자에게 되물음으로써 심적으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6)b는 평소 직장에서 영어를 흔히 사용하는 PHK3에게 직장 상사가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한국어 실력이 똑같을 것이란 말을 하자 기본이 상한 PHK3이 되묻기를 통한 확장 응대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되묻기는 직접적인 비선호적 응대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청자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접적인 표현 행위일 것이다.

2) 부연 설명하기

비선호적인 부연 설명하기는 ‘아니, 몰라(요)’ 등의 직접 부정어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연하는 것이다. 질문자의 말을 부정하므로 생길 수

있는 질문자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고, 화자와 청자 간에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다.

(7) PHK3: 부업 안 갔어?

VTK3: 안 가요. 없어요. 그냥 지금 임신 있어요.

CMK7: 지금 임신 했어요? 몇 개월 됐어요?

VTK3: 음. 삼 개월 며칠 됐어요.

CMK7: 아, 축하해요. [웃음]

VTK3이 ‘안 가요, 없어요’ 다음에 ‘임신 있어요(했어요)’라는 설명을 부연함으로써 몇 번의 대화 순서교대가 더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축하 인사까지 나누게 된다. 만약 VTK3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와 같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부연 설명하기와 같은 확장 응대는 대화를 유지하려는 청자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대응쌍 생성을 활발하게 하여 상호작용성을 높일 수 있다.

3) 화제 전환하기

화제 전환하기란 선행 발화에서 질문을 받거나 요청을 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대부분 청자가 화자의 대답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8) CMK2: 몇 번이에요? 저 사 층 방 몇 번이에요?

VTK1: 많아요 사람들.

CMK2: 방 번호 몇 번이에요?

VTK1: 방 번호? 애기 보내요. 애기 방 있:13) 애기 방. 아줌마도 많

13) ‘:’은 말 끊어짐의 전사 기호로 곧바로 이어질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갑자

인테.

두 번의 말차례에서 VTK1이 CMK2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화제로 대답한다.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든, CMK2가 시도한 대화는 단절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화제 전환하기는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어 의도성이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원만한 대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4) 서언 사용하기

대화의 원활한 지속을 위해서는 비선호적 응대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발화가 필요하다. 서언 사용하기는 시간 별기의 일종이지만 휴지(pause)나 망설임과 달리 상대방을 배려함으로써 나타나는 언어적 반응이다.

(9) a. 한국인: 냉장고 청소 힘들잖아요?

CMK4: 괜찮아요. 아노. 안 같이 해요. 혼자해요.

b. CMK1: 시아버지 돌아갔어요. 경남. 밀양.

VTK1: 뭐? 경남? 멀어요?

CMK1: 잠깐만요. 경남 몰라요?

c. 공장장: 왜 모르는데, 필리핀 사람인데 왜 안 맞아?

PHK3: 음, 잠깐만. 아니, 모른다. dictionary.

한국어에서는 흔히 ‘글썄, 있잖아, 잠깐만’ 등이 서언으로 사용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잠깐만’도 자주 사용하지만 ‘괜찮아요’나 ‘근데’ 등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말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미 없이 동사의 어간만 나타나거나 동사의 어간에 선어말어미(특히, ‘었/았’)만 결합한 채 종결어미 없이 문장을 끝맺는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5) 휴지나 망설임

화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경우 청자가 시간을 벌기 위하여 발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지를 갖는다거나 ‘음, 아, 저’ 등을 발화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화자의 비선호적 태도로 응대할 수 있다.¹⁴⁾

(10) CMK7: 언니 밥 같이 먹을까요?

CHK1: 시간 안 돼.

CMK7: 밥을 같이 싫어요?

CHK1: 어떻게, 음.....

6) 무반응

무반응¹⁵⁾은 선행 발화에서 반응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의도적으로 언어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무반응은 대화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화제 전환하기와 공통점이 있지만 화제 전환하기와는 달리 언어적 반응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무반응은 비선호적이지만 언어적 반응이 있는 화제 전환하기와 달리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무런 언어적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화자의 체면이 손상 받기 쉽고 대화의 분위기가 원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11) VTK4: 아, 필리핀 사람, 필리핀 손으로 손으로 밥 먹어 맞아요?

PHK3: 네. 맞아요.

VTK4: 근데, 언니. 음, 필리핀에 손으로 밥 먹어. 한국에 와 젓가

14) 초급 학습자들의 구어 말뭉치 자료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시간 끌기의 ‘망설임’과 비선호적 응대에 대한 보완 장치로 나타나는 ‘휴지나 망설임’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따라서 ‘휴지나 망설임’의 경우 명백한 부정적 응대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15) 언어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화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를 화자의 의도 있는 의미적 행위로 보는 것이다.

락, 손가락 잘 하? 젓가락 손가락 잘 할 수 있어요?

PHK3: ……….

VTK3: 여기 다른 나라 그래요. 손으로 먹어요. 손가락, 젓가락으로.

두 번째 순서교대에 있는 PHK3의 무반응은 ‘네’만으로도 소극적 응대를 할 수 있으나 무반응을 함으로써 VTK4에 대한 의도적인 반감을 표시한다.

7) 돌려 답하기

돌려 답하기는 되묻기와 같이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고, 간접적으로 대답함으로써 화자에게 비선호적으로 응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CMK2: 한국은 화장실도 후지(휴지)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 후지 없어요. 어머, 그냥 물 씻겨요(씻어요). 처음 우와, 한국에 왔어요. 후지. 맞죠?

CMK1: (아주 단호하며 큰소리로) 아줌마.

CMK1은 가난한 모국의 사정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CMK2가 못마땅하여 동조를 구하는 CMK2의 발화에 대해 동조나 맞장구는커녕 ‘아줌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간접적으로 ‘그만하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8) 언어 전환(code-switching)

언어 전환이란 하나 이상의 언어를 사용할 때 그것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에서는 목표어가 아닌 다른 언어(주로 학습자의 모어)로 낱말이나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주로 필리핀 학습자들에게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비선호적 응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베트남어나 중국어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코드 전환을 할 경우 의사소통이 실패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어 전환은 전체적으로 극히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다음은 언어 전환의 예이다.

(13) VTK1: 신혼여행 어디 갔어요?

VTK3: 아니요.

VTK1: 못 갔어요? 다시 결혼 안 했다고?

PHK3: 없어요.

VTK1: 여기서 안 했다고?

PHK3: 아. 집에. wedding? Korean traditional.

4.2.3. 비선호적 응대의 사용 양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evinson(1983)과 Yule(2001)에 따르면 비선호적 응대가 선호적 응대보다 그 구조가 복잡하고 대화가 길어짐으로써 언어 내용도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선호적 응대를 사용할 경우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비선호적 응대가 선호적 응대보다 더 능숙한 한국어 사용 능력의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 7>은 비선호적 응대의 출현 빈도를 단순 응대와 확장 응대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7> 비선호적 응대의 출현 빈도

분 류		빈도(회)	비율(%)
단순 응대		368	35.32
확장 응대	되묻기	291	27.93
	화제 전환하기	90	8.64
	부연 설명하기	88	8.45
	서인 사용하기	54	5.18
	휴지나 망설임	50	4.80
	무반응	47	4.51
	돌려 답하기	45	4.32
	언어 전환	9	0.86
계		1,042	100.00

여성 결혼이민자의 비선호적 응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언어적 형태는 ‘아니다’이다. 선호적 응대에서 ‘네’가 편중되어 나타났던 것과 같이 비선호적 응대에서는 ‘아니다’의 출현 빈도가 극히 높다. 이 역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것이다. 다음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대화에 나타난 비선호적 응대의 형태적 유형이다.

<표 8> 비선호적 응대의 형태적 유형

표현	빈도(회)	비율(%)
아니다	457	85.74
몰라요	42	7.88
아뇨	14	2.63
됐다	9	1.69
아냐	7	1.31
정말?	3	0.56
진짜?	1	0.19
계	461	100.00

5. 맺음말

초급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대화의 특성과 언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일상적인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언어적 반응이 반드시 필요한 응답 발화의 사용 양상을 선호적 응대와 비선호적 응대로 구별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선호적 응대에서는 단순 응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단순 응대는 일반적으로 선행 발화를 지지하여 청자의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선호적 응대의 단순 응대는 부족한 한국어 능력과 서툰 한국어적인 화행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키고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의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응대를 하더라도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언어 교육과 더불어 기초적인 화행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호적 응대는 화자의 체면 손상이나 변명, 부연설명이 추가되어서 확장 응대의 비율이 높았다. 초급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확장 응대의 여러 방식 가운데 낮은 한국어 숙련도에 기인하여 선행 화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되묻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대화 참여 태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선호적 응대를 할 수 있는 서언 사용하거나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하기 등이 초급 수준에 맞는 실제적인 화행 교육으로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초급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응답 발화 사용이 상호협력적인 대화 구성에 미흡하며 한국어로 응답 발화를 확장하여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아직은 한국어 숙련도가 낮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지만 참여하는 대화에서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응답 발화에 대한 언어 교육과 화행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구현정(2000). 개정 대화의 기법: 이론과 실제, 서울: 경진문화사.
- 국립국어원(2006).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특수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김미령(2003). 우리말 대응발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령(2005). 전달목적 발화에 대한 후행 발화의 화행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253쪽~287쪽.
- 김미령(2006). 반응요구 화행의 유형 설정, <한민족어문학>, 49, 1쪽~34쪽.
- 김정선, 장경희(2007). 질문에 대한 응대 방법을 통한 말하기 능력 평가, <한국언어문화>, 34, 5쪽~23쪽.
- 서상규·구현정(2005). 한국어 구어 연구 2: 대학생 대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은영(2003). 직접적인 대답과 간접적인 대답의 기능, <한국어학>, 20, 한국어학회, 175쪽~190쪽.
- 이정희(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어 담화 특징 연구, <이중언어학>, 29, 이중언어학회, 265쪽~292쪽.
- 장경희(2000). 판정 질문에 대한 긍정과 부정. <한국어 의미학>, 7, 한국어의미학회, 149쪽~174쪽.
- 장수희(2004). 일상 대화에 나타난 청자 반응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옥, 구현정(2003). 토론에 나타난 대응쌍 연구, <담화와 인지>, 10(3), 담화인지언어학회, 249쪽~274쪽.
- Beaugrande, R.(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NJ: Ablex.
- Corsaro, W.(1985). Sociological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In T. Van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1. NY: Academic Press.
- Heritage, J.(1984). *Garfinkel and ethnomethod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Levinson, S.(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merantz, A.(1984). Agreeing and disagreeing with assessments: Some features of preferred/ dispreferred turn shapes, In J. Atkinson and J.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cks, H.(1972). Adjacency pairs: Scope of operation, G. Jefferson (Ed.), *Lectures on conversation*, 2, Oxford: Blackwell.
- Schegloff, E.(1982).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Schiffirin, D.(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 D.(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 Yngve, V.(1970). On getting a word in edgewise, *In papers from the six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567-577.
- Yule, G.(2001). 화용론 (서재석, 박현주, 정대성 옮김). 서울: 박이정.(원서출판 1996)

김선정(Kim Seon-Jung)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문화정보학과

전화번호: 053-580-6941

전자우편: kimsj@kmu.ac.kr

김신희(Kim Shin-Hee)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전화번호: 053-553-7870

전자우편: asevelike@kmu.ac.kr

접수일자: 2012년 12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12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19일